산업통상자원부	**보도참고자료**	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배포일시	2018.5.31.(목)	담당부서	미주통상과 자동차항공과
담당과장	김장희 과장(044-203-5650) 박종원 과장(044-203-4320)	담 당 자	노진만 사무관(044-203-5652) 박현호 사무관(044-203-4329)

미국 자동차 232조 관련, 전문가 간담회 개최

- 자동차 232조 조사 개시에 대한 대응방향 논의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의 국가안보영향 조사 개시와 관련해 5. 31.(목), 통상 및 자동차 분야 민간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.

< 미국 자동차 국가안보 조사 개시 관련 전문가 간담회 >

○ **일시 / 장소** : '18. 5. 31.(목) 08:00 ~ 09:30 / 달개비

○ **참석자 : (정부)** 통상차관보, 신통상질서협력관, 자동차항공과장, 미주통상과장 등
(전문가) 허윤 국제통상학회장,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,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김경유 산업연구원 실장, 배찬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등 産·學·硏 전문가 10여명

□ 간담회 계기 민간 전문가들은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 232조 조사개시로 국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욱 확산되고 전세계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,

○ 향후 대미 통상관계, 국제 규범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전략을 수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.

□ 회의를 주재한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엄중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

○ “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의견서 제출(6.22), 공청회(7.19~20) 등 미국 정부의 조사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대미(對美) 주요 인사 방문을 추진하는 한편, 주요국과의 공조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.”라고 말했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수입 232조 조사개시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업계와 함께 민관 합동 특별팀(TF)을 발족(5. 24.)하고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한편, 유럽연합(EU), 멕시코, 캐나다, 일본 등 주요국 상무관과도 대응방향을 논의(5.28~30) 했다.

* (특별팀<TF> 구성) 산업부, 완성차 5개 회사, 모비스 등 부품업계, 한국자동차산업협회,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노진만 사무관(☎044-203-565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